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근위대 앞에서 세를 낸 집에서 구금되어 있을 때 쓴 편지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과 경건한 삶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감사하고 기도로 먼저 시작합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감사하고 기도할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 감사할 일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음이 굳센 것을 감사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선행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다는 이 믿음이 굳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동이 나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므로 믿음을 굳게 하고 나갑니다.

감사의 두 번째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야 하겠다”는 욕구가 많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사랑으로 나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사랑합니다. 15 절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내가 편한 사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함께 성도가 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가족과 성도의 부족함을 보면서도 그 사람은 사랑합니다.

-->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 물질과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믿음 대로 행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해도 믿음의 중심이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이 부족해도 이 정도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일하셔서 믿음을 성장하게, 사랑이 성장하게 하십니다. 자식은 믿음과 사랑이 부족해도 감사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 빌립보서 1 장

성경을 읽은 다음 가정기도문을 읽으세요. <https://cafe.daum.net/-goodchurch/RPfx/7>

빌립보서도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로마에서 구금되었을 때 쓴 편지성경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계속 일하십니다. 복음과 교회를 확장하는 일을 행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일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계속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도 바울 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항상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에서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용감히 싸웁시다. 이 시대에도 복음과 교회가 확장되는 큰 그림을 보고 기뻐합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우리를 반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쉽게 낙담하지 맙시다. 때로는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십니다. 또 부당하게 우리의 복음적 삶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며 위로를 받읍시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가족, 우리 성도들이 서로 격려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굳게 섭시다.

- 1. 오늘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 찬양합니다.
 - 2.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회개, 감사, 사랑, 섬김 등)
- 내 삶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높이기 위해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 암송(매일 묵상하며 암송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17)